

도교육청, 학생 안전권 보장 총력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 내일부터 시·군 교육지원청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으로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로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일정은 오는 27일 부안·고창을 시작으로 30일 진안·무주, 12월 4일 임실·남원, 9일 익산·군산, 14일 전주·순창, 17일 완주·장수, 18일 김제·정읍 순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학생안전 교직원 교육(재원배분) △안전교육 실적 입력 상황 확인 △대규모행사 사전 안전점검 △원스톱 안전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학생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결과 나눔 등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9 감염

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상태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개교에 대해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 및 컨설팅, 대규모 행사 사전 안전점검, 전북안전 매뉴얼 활용 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재난에 대한 학생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교육 보완하기 위해 초·중·고교 학생 1만4,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도 실시했다.

자연재난·사회재난·생활안전 분야 등의 출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보고, 인식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학생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66개소에 카메라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우리교육청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미래 월드스타로 성장해 주길”

전북체육회, 우수 꿈나무 선수 · 지도자 격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월드스타 육성 간담회를 열어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하고 방한복과 운동화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월드스타 육성사업은 우수 꿈나무 선수를 조기에 찾아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배드민턴 김태림(생명과학고)과 김유정(성심여고), 테니스 조세혁(금암초), 수영 이서아(서일초) 등 총 4명의 선수가 육성선수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올림픽 또는 세계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대형 스타 선수로 육성시켜 국위선양 및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도 체육회는 이들의 기량



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상분석과 심리지원, 맞춤형 운동재활, 체력단련 프로그램 등 밀착지원을 해왔다.

또한 훈련용품과 전지훈련 등도 적극 지원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미래 대한민국 체육을 빛낼 월드스타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Start-up R&D 첫걸음 캠프

전북대학교는 도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R&D 제품 개발 확대를 위한 ‘전북 Start-up R&D 첫걸음 캠프’를 24일과 25일 양일 간 남원 스타트업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창업보육협회(회장 권대규)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역 창업기업과 창업보육센터 관계자, 창업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기술 아이템의 시장성과 기술성 사업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초기 창업자에게 R&D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선배 기업 간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업기업의 R&D지원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 자리가 됐다.

권대규 협의회장은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와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 개발이 창업기업 수의 창출의 핵심”이라며 “이는 도내 고용 창출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도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중심에 창업보육센터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R&D 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적시에 활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도내 기업의 R&D 활성화가 경제위기인 지금 시점에서 기업에게 더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단장 채준호)은 지난 2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2회 전라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대, 도내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 수립 포럼

전북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단장 채준호)은 지난 2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2회 전라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북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황 진단과 전략 등이 제시됐다.

전북 고용가버너스 현황을 진단하고 고용가버너스 모델 개발 및 실행 전략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한

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이끌었던 박병규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도 함께 참여해 전북 고용가버너스 구축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지역여건, 산업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평가·환류하는 일자리 플랫폼 및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는 전북지역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이슈다.

이번 포럼에서의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는 전북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방과후활동 운영사례 공유

전북도교육청,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 성장 워크숍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파티원 세미나실에서 관계자 및 지역청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의 성장을 위한 방과후활동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목공예, 드론, 야구, 방송댄스, 한국무용, 창작글쓰기 등 다양한 방과후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와 마을과 지역이 함께 방과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 방과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엔 각 10일 20시간, 봄학기와 가을학기는 각 15주 30

시간씩 운영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조창숙 대표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마을학교 운영의 실제’ ▲전주·군산·익산 지역 운영 사례 나눔 ▲2021 방과후마을학교 사업 안내 등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로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도시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사례 공유 및 나눔으로 방과후마을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예·체 강사들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교육문화회관, 온·오프라인 학습발표회 개최

부안교육문화회관은 28일부터 27일까지 ‘배움 나눔 어울림 한마당’ 학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배움 나눔 어울림 한마당은 한 해 동안 수강생들의 학습 결과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장으로 수강생 작품 전시, 수강생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학습발표회를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행사로 추진한다.

개회식 및 학생·평생교육 수강생들의 공연은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연 영상은 부안교육문화회관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channel/UCmiPpaxSLyqYUOrQigJ3w)을 통해 공개되며,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학생·평생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은 28일과 2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참가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7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다문화 이해 인형극 ‘차림에 빠진 개구리’가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입장하기 전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를 작성한 후 입장권 팔찌를 배부받아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